



내 용기 돌려줘!

유곡중 1-3 서찬율

해도 늦잠 자다 느지막이 일어나는 토요일 아침.

내 방문 앞에는 역시나 잔소리 폭탄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었다.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잔소리를 들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냥 누워있었다. 방문이 열리는 순간 내 귀는 스스로 닫혔지만, 미약하게 들리는 잔소리만으로도 지구를 다섯 바퀴는 돈 것 같았다.

“너, 아무리 주말이어도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아침부터 공부하라는 말을 들으니 화도 나지만 저 멀리 떠나간 100점의 꿈이 더 슬프게 느껴졌다. 그래도 공부를 하면 늘 나에게 떨어지는 보상이 있었기 때문에 군말 없이 숙제를 모두 끝냈다.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거실로 가니 엄마와 아빠가 나갈 준비를 마치고 빨리 가자고 했다. 가다 보니 어느새 경주에 들어와 경주월드로 가고 있었고 내 마음은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다. 차에서 내려 처음 마주한 것은 내가 가장 피하고 싶은 자이로드롭이었다. 웬지 모르는 내장이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 때마다 짜릿하지만 무서우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걸 알기에 체념하고 있던 나를 형만은

알아차렸는지 나에게 가위바위보를 제안했다.

“안 돼!”

형이 나에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 어쩔 수 없이 놀이기구에 타서 안전 도구가 내려오니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놀이기구는 나의 그런 마음을 무시하듯 일부러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올라갔다. 꼭대기까지 올라가니 ‘여기서 날아가면 어떡하지’라는 별 이상하고 무서운 생각이 계속 났다. 진행자 같은 분이 3초를 세라고 하셨고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3, 2.” 1을 세려던 순간 그 높이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지기 시작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바지가 축축했다.

“형, 바지가 축축해.”

그 말은 들은 형은 곧장 웃으면서 부모님께 달려갔고 혼자 땀뽕 땀뽕 서있던 나는 혼자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냥 길을 잃은 아이같이 보였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상황은 그 어떤 때보다도 심각했다. 눈에는 슬픔인지 당황인지 모를 눈물이 고여있었고 바지는 그 눈물양의 10배 가까이 양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래서 울음을 터트리려던 순간 엄마가 뛰어와 나를 보더니 웃음을 감추시며 괜찮냐고 물어보셨다.

“괜찮아?”

“응.”

엄마가 오자 이제는 그냥 집으로 뛰어가고 싶었다. 중학생이나 돼서 바지에 지리는 애가 나라는 것이 창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내 주위에만 해도 나처럼 용기가 없어 무서운 것을 피하는 친

구들이 있다. 무서운 것을 탈 때마다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까
봐 겨우 타는 친구들도 있다. 그때마다 친구들을 위한 또 다른 놀
이기구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또한 내 용기는 또 어
디 갔는지가 궁금하기도 하다.

만약 진짜로 신이 있다면 나에게 용기를 조금이라도 주었으면
좋겠다.

